

생활과 윤리

1등급 출제 공식 AI 해부

196,382

2026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응시자 수(명) · 사회탐구 2위

사탐 응시자 2위, 만점자만 1,688명
1등급은 사상이 비교에서 갈린다
AI가 역대 수능 생활과 윤리를 분석한
1등급 최종 점검서

2026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응시자 196,382명 — 사회탐구 2위.

만점자 0.86%, 실수 하나가 등급을 가르는 과목.

8대 출제 공식, 사상이 비교 중심 실전 25문항,

사상가별 핵심 입장 비교표, 시험장 30분 운영법까지

8대 출제 공식

실전 25문항+해설

롤스·노직·왈처 분배 정의

싱어·롤스·노직 해외 원조

환경 윤리 4대 입장

사상이 입장 비교표

30분 운영법

CONTENTS

차례

PART 1 수능 생활과 윤리 해부도	3
1. 20문항 배치도와 30분 시간 설계	4
2. 역대 수능을 관통하는 8대 출제 공식	5
PART 2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· 생명과 윤리	6
1. 윤리학의 분류와 메타 윤리 — 실전 1	7
2. 의무론과 공리주의 — 실전 2	8
3. 덕 윤리와 동양 윤리 — 실전 3	9
4. 삶과 죽음, 안락사 — 실전 4~5	10
5. 사랑과 성, 생명 윤리 — 실전 6~7	12
PART 3 사회와 윤리	14
1. 직업과 청렴의 윤리 — 실전 8	15
2. 분배 정의: 롤스·노직·왈처·마르크스 — 실전 9~10	16
3. 우대 정책과 처벌의 윤리 — 실전 11~12	18
4. 국가 권위와 시민 불복종 — 실전 13~14	19
PART 4 과학과 윤리 · 문화와 윤리	21
1. 과학 기술과 정보 사회의 윤리 — 실전 15~16	22
2. 환경 윤리 4대 입장 — 실전 17~18	23
3. 예술·의식주·다문화·종교 — 실전 19~20	25
PART 5 평화와 공존	27
1. 평화의 의미와 국제 관계 — 실전 21~22	28
2. 사회 갈등과 통일 — 실전 23	29
3. 1등급 킬러 — 해외 원조 — 실전 24~25	30
PART 6 마지막에 꼭 볼 것	33
1. 사상가별 핵심 입장 비교표	34
2. 헛갈리는 개념 쌍	36
3. 시험장 30분 운영법	37
정답 및 해설	38

역대 수능을 관통하는 8대 출제 공식

공식 1. 사상가는 "핵심어 두 개"로 확정한다

핵심어 하나로 찍으면 비슷한 사상가에게 걸립니다. **원초적 입장 + 차등 원칙 = 롤스, 소유 권리 + 최소 국가 = 노직, 복합 평등 + 사회적 가치의 의미 = 왓처처럼 두 개가 맞을 때 확정하세요.**

공식 2. "갑과 달리 을은"은 판정을 두 번 한다

이 문장이 참이라면 **을은 그렇다(○), 갑은 그렇지 않다(×)**가 둘 다 성립해야 합니다. 출제자는 둘 중 하나만 맞게 만들어 오답을 만듭니다. "갑, 을 모두"는 둘 다 ○여야 합니다.

공식 3. 그림 A·B·C 영역형은 B(공통)부터 채운다

A는 갑만, B는 갑과 을 공통, C는 을만의 입장입니다. 공통 영역 B에 들어갈 진술이 가장 까다롭고, 한쪽만 동의하는 진술을 B에 넣는 것이 대표 오답입니다. 진술마다 (**갑 ○/×, 을 ○/×**) 두 칸을 먼저 적고 영역에 배정하세요.

공식 4. 정도·범위 표현을 바꿔 오답을 만든다

"~만", "모든", "언제나", "어떤 경우에도", "절대적으로"가 붙으면 사상가의 실제 입장보다 강해졌는지 확인합니다.
예: 칸트는 동물을 **직접적** 의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, 동물 학대를 **허용하지도 않습니다**(간접적 의무).

공식 5. 이웃 사상가의 주장을 옮겨 놓는다

벤담 ↔ 밀(쾌락의 양·질), 싱어 ↔ 레건(교통·권리), 테일러 ↔ 레오폴드(개체·전체), 홉스 ↔ 로크(양도·신탁), 소로 ↔ 롤스(양심·공유된 정의관). 선택지 주어를 가리고 "이건 누구의 말인가"를 먼저 답하세요.

공식 6. 같은 사상가의 국내 이론과 국제 이론을 구분한다

롤스는 국내에서는 차등 원칙을 주장하지만, **국제 사회에 차등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**. 원조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이고, 목표가 달성되면 원조를 멈춥니다. 칸트의 국내 형벌론(응보)과 국제 평화론(국제 연맹)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.

공식 7. 결론이 같아도 근거가 다르다

칸트와 벤담은 모두 사형을 허용할 수 있지만 근거가 **응보**와 **예방(사회적 이익)**으로 다릅니다. 베카리아는 **사회 계약**을 근거로 사형에 반대합니다. "~을 근거로"가 붙은 선택지는 근거까지 맞아야 참입니다.

공식 8. 표의 예/아니요형은 "아니요" 하나로 가른다

사랑과 성, 다문화 정책, 환경 윤리가 A·B·C로 가려져 나옵니다. **셋 중 하나만 다른 답을 하는 질문**을 먼저 찾으면 정체가 바로 드러납니다.

실전 1 갑~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2점 · 목표 45초]

갑 : 윤리학의 일차적 과제는 '옳다', '좋다'와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고, 도덕적 추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다.

을 : 윤리학은 특정 사회의 도덕적 관습과 풍습이 어떠한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,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를 설명해야 한다.

병 : 윤리학은 생명 복제, 기후 위기처럼 새롭게 등장한 구체적 문제에 여러 학문의 성과를 함께 활용하여 도덕 원리를 적용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.

- ① 갑은 도덕적 관습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된 목표로 본다.
- ② 을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정립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본다.
- ③ 갑과 달리 을은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윤리학의 본질로 본다.
- ④ 을과 달리 병은 윤리학이 도덕 원리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.
- ⑤ 병은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학문과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.

PART 2 · 02

의무론과 공리주의

사상가	핵심 입장	출제 키워드
칸트	도덕적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된 동기 (선의지)에 있음.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 — 보편화 가능성,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 것	선의지, 정언 명령, 자율, 목적의 왕국
벤담	쾌락과 고통의 양 을 강도·지속성·확실성 등으로 계산.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. 쾌락의 질적 차이 인정 안 함	양적 공리주의, 쾌락 계산, 행위 공리주의
밀	쾌락에는 질적 차이 가 있음 — 정신적 쾌락이 감각적 쾌락보다 우월. 내적 제재(양심) 중시	질적 공리주의, "배부른 돼지"의 비유
규칙 공리주의	개별 행위가 아니라 규칙 을 따를 때의 결과로 옳음을 판단	행위 공리주의와 구분

출제 공식 — 의무론 vs 공리주의

- 공통점: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며, **자기 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**(윤리적 이기주의 거부).
- 칸트: 결과가 좋아도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음. 경향성(욕구)에서 나온 친절도 마찬가지.
- 벤담 vs 밀: 둘 다 결과주의. "쾌락의 질"이 나오면 밀, "쾌락 계산의 기준"이 나오면 벤담.

분배 정의: 롤스·노직·왈처·마르크스

사상가	핵심 입장	출제 키워드
롤스	원초적 입장·무지의 베일 에서 합의한 원칙이 정의(공정으로서의 정의). 제1원칙: 평등한 기본적 자유. 제2원칙: 공정한 기회 균등 + 차등 원칙 (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). 사회적·자연적 우연성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	순수 절차적 정의, 최소 수혜자, 복지 국가 정당화
노직	소유 권리론 — 취득·이전·교정의 원리에 따라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에 대해 절대적 권리. 국가의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같음. 최소 국가	자유지상주의, 역사적 원리, 교정의 원리
왈처	복합 평등 — 사회적 가치(부·권력·명예·교육 등)는 각각의 사회적 의미 에 따라 고유한 분배 원칙을 가짐.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을 지배해서는 안 됨	다원적 정의, 공동체주의, 지배의 금지
마르크스	자본주의는 계급 착취를 낳음 → 사유 재산 철폐. 공산주의 사회에서 "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"	필요에 따른 분배, 계급 없는 사회

출제 공식 — 분배 정의 1등급 포인트

- **롤스 vs 노직 공통점**: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, 공리주의 비판(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 권리를 희생하는 것에 반대).
- **롤스만**: 우연성의 영향 완화, 차등 원칙, 재분배 정당화. **노직만**: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, 최소 국가, 재분배 과세 반대(자선은 개인의 자유).
- 노직도 **교정의 원리**는 인정 — 부정의한 취득·이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.
- 왈처는 단일 기준(롤스의 원칙 같은)을 모든 가치에 적용하는 것을 비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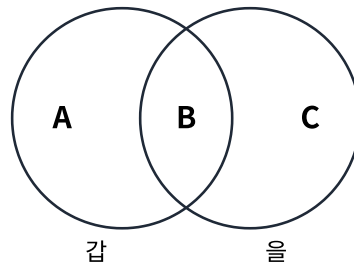
오답 함정

- "노직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소유에 개입할 수 없다고 본다" — 교정의 원리에 따른 개입은 인정 ×
- "롤스는 결과적 평등을 위해 모든 가치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" — 차등 원칙은 불평등을 조건부로 허용 ×

실전 9 서양 사상이 갑,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, A~C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 · 목표 1분 20초]

갑 : 자신이 어떤 재능과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한 원칙이 공정하다. 사회적·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된다.

을 : 정당하게 취득하고 정당하게 이전받은 소유물에 대해 개인은 권리를 가진다. 국가가 재분배를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은 개인의 노동 일부를 강제로 빼앗는 것과 같다.



(A: 갑만의 입장, B: 갑과 을의 공통 입장, C: 을만의 입장)

<보 기>

- ㄱ. A: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소유물은 국가가 재분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.
- ㄴ. A: 사회적·자연적 우연성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.
- ㄷ. B: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이유로 침해될 수 없다.
- ㄹ. C: 개인은 정당하게 획득한 소유물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실전 10 서양 사상이 갑~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 · 목표 1분 10초]

갑 : 돈, 권력, 명예, 교육, 의료는 저마다 다른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. 각 가치는 그 의미에 맞는 고유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며,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정치 권력이나 의료까지 차지해서는 안 된다.

을 :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계급 착취의 뿌리이다. 계급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.

병 :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원칙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.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원칙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면, 그 결과도 정의롭다.

- ① 갑은 하나의 분배 기준을 모든 사회적 가치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.
- ② 병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원칙에 따른 분배가 정의롭다고 본다.
- ③ 을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필요에 따른 분배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.
- ④ 갑과 병은 모두 사회적 가치의 의미가 공동체마다 다르다는 점을 분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.
- ⑤ 을과 달리 병은 사유 재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.

실전 16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2점 · 목표 40초]

갑 : 창작물에는 창작자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 있다. 창작자에게 그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야 새로운 창작이 계속될 수 있다.

을 : 모든 지식은 앞선 사람들의 성과 위에서 만들어진다.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고쳐 쓸 수 있어야 지식이 더 빨리 발전한다.

- ① 갑은 저작권 보호가 창작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고, 을은 정보 공유가 지식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.
- ② 갑은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하고 수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.
- ③ 을은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해 정보의 독점이 필요하다고 본다.
- ④ 갑과 달리 을은 지적 재산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.
- ⑤ 을과 달리 갑은 정보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아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.

PART 4 · 02

환경 윤리 4대 입장

입장	사상가	도덕적 고려 대상과 핵심 논리
인간 중심주의	아리스토텔레스, 데카르트, 베이컨, 칸트, 패스모어	인간만이 도덕적 지위. 칸트: 동물에게 직접적 의무는 없지만 ,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인간에 대한 의무(인간성)를 해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함(간접적 의무)
동물 중심주의	싱어	쾌고 감수 능력 이 있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.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. 종 차별주의 비판. 공리주의
	레건	삶의 주체 인 동물은 내재적 가치 와 권리 를 가짐. 동물 실험·상업적 사육·사냥의 폐지. 공리주의적 계산으로 권리 침해 정당화 불가
생명 중심주의	슈바이처, 테일러	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고려 대상. 테일러: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 , 고유한 가치. 불침해·불간섭·신뢰(성실)·보상적 정의의 의무. 개체주의
생태 중심주의	레오폴드, 네스	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 가 도덕적 고려 대상. 레오폴드 대지 윤리 :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·안정성·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것이 옳음 . 전체론

출제 공식 — 환경 윤리 두 축

- **범위 축**: 인간 < 동물(쾌고 감수·삶의 주체) < 모든 생명체 < 생태계 전체(무생물 포함)
- **개체 ↔ 전체 축**: 싱어·레건·테일러는 **개체주의**, 레오폴드·네스는 **전체론**. "생태계 전체만이 고려 대상"은 테일러에게 X.
- 싱어 vs 레건: 같은 결론(공장식 사육 비판)이라도 근거는 **고통·이익** vs **권리·내재적 가치**. 싱어는 결과에 따라 일부 동물 실험을 허용할 여지가 있지만, 레건은 폐지.

실전 19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2점 · 목표 40초]

갑 : 예술은 사람들의 감정을 정화하고 선한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. 사회에 해로운 가치를 퍼뜨리는 작품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좋은 예술이라 할 수 없다.

을 : 예술 작품은 잘 만들어졌거나 잘못 만들어졌을 뿐,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은 없다. 예술은 아름다움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.

- ① 갑은 예술이 도덕과 무관하게 아름다움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.
- ② 갑은 예술이 인간의 도덕적 품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.
- ③ 을은 예술 작품을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면 검열해야 한다고 본다.
- ④ 을은 예술의 가치가 사회적 유용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.
- ⑤ 갑과 을은 모두 예술의 자율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.

실전 20 표는 다문화 정책 A~C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A~C는 각각 동화주의, 다문화주의, 문화 다원주의 중 하나이다.) [2점 · 목표 50초]

질문	A	B	C
이주민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흡수·융합되어야 하는가?	예	아니요	아니요
주류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는가?	예	아니요	예

- ① A는 다양한 문화가 대등한 지위로 공존해야 한다고 본다.
- ② B는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이주민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.
- ③ C는 국수 대접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.
- ④ B와 달리 A는 이주민 문화의 고유성 보장을 중시한다.
- ⑤ A와 C는 모두 이주민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.